

##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상징성 문제<sup>†</sup>

김 태 경<sup>‡</sup>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개발과 사용을 반대하는 주된 논의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성적 인공물의 사용이 결과적으로 인간성의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들의 논증은 실재적 근거에 의한 주장이 아닌 우연적 상징성에 근거한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먼저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리얼돌이나 섹스로봇의 개발과 사용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지는 이러한 우연적 상징에 기반한 논증으로 명백히 평가될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 역시 사물에게 부여된 우연한 상징성에 기반한 것이 아닌 실천적 근거로 부터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주요어】 리얼돌, 섹스로봇, 성적 유아론, 인간의 사물화, 상징적 결과 논증

<sup>†</sup> 이 논문의 내용은 2019년 여름 그리고 2020년 여름 한국과학철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소재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논증이 보완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참가자 분들, 특히 이중원, 박영태 두 분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부족한 논문을 심사하고 예리한 지적을 통해 미비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익명의 심사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sup>‡</sup>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겸직교수, ktkw21@kaist.ac.kr

## 1. 들어가는 말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진행되었던 리얼돌 수입업체와 인천 세관의 재판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2017년 인천세관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그 수입 통관을 보류하게 된다. 이에 수입업체는 소를 제기하게 된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사람의 신체를 적나라하게 묘사”했으며, 이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천 세관의 손을 들어준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1심과는 확연히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리얼돌은 성기구에 해당하고,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에 충족이 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성 기구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으며,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 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도구의 사용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6월 13일 대법원 2부에서 리얼돌의 수입을 불허한 인천 세관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이에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가 정상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2017년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인의 50% 가량은 앞으로 50년 내에 로봇과 성관계를 맺는 일이 일상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sup>1)</sup>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일반인들이 성적 인공물에 대해 갖는 상식적 이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일부 찬성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얼돌 그리고 섹스로봇과 같은 성적 인공물에 대한 이슈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인공물의 제작과 상용화를 반대하는 측에 따르면, 이들 도구는 남성의 성적 욕구에 맞도록 여성을 왜곡시켜 “여성신체형상을 남성의 욕망 그릇으로 최적화 하는 장치”<sup>2)</sup>이다. 그리고 이들 도구의 제작

<sup>1)</sup> Shen (2019).

<sup>2)</sup> 윤지영 (2020), p. 7.

과 사용은 사물의 여성화를 거쳐 여성의 사물화라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욕망과 관점의 실재성이 모두 제거된 수동적 존재로서 인식되어 진다.<sup>3)</sup>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사회 속에서 여성이 갖는 불평등한 상징을 실재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제작과 사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들 인공물의 상용화는 잠정적으로 인격의 훼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안티섹스로봇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케이틀린 리차드슨(Kathleen Richardson)은 리얼돌이나 섹스로봇과 같은 인공물의 제작과 사용은 결과적으로 “매춘 산업과 직결되어 있고, 사람을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섹스로봇의 사용과 성매매는 이러한 점에서 유사점을 가지게 된다.”<sup>4)</sup> 그리고 이는 사람을 사물화 시키고 노예화 시키는 심각한 인격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적 인공물의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은 리얼돌과 섹스로봇이 여성이 갖는 불평등한 상징을 실재적으로 구체화시키고 나아가 인격의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그 주요 논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위의 주장을 포함한 논증들이 갖는 특징에 주목하여, 리얼돌 그리고 섹스로봇이 인간의 사물화 그리고 인권의 침해를 전적으로 상징하고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대네허(John Danaher)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논증은 우연적으로 부여된 사물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전개된 ‘상징적 결과논증(Symbolic Consequences Argument)’의 유형에 해당한다.<sup>5)</sup>

필자는 데네허의 입장을 바탕으로 리얼돌이나 섹스로봇의 개발과 사용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지는 이러한 우연적 상징에 기반한 논증으로 명백히 평가될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 역시 사물이 갖는 우연한 상징성에 기반한 것이 아닌 실천적 근거로 부터 마련되어야 함을

<sup>3)</sup> Ibid., pp. 25-26.

<sup>4)</sup> Richardson (2016), p. 293.

<sup>5)</sup> Danaher (2017), pp. 107-113,

아래의 순서에 따라 논의하게 될 것이다.<sup>6)</sup>

먼저 2절에서는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상용화 문제에 나타난 성적유아론(Sexual Solipsism)의 구체화 문제와 인간의 사물화(Objectification)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검토한 이 문제들이 우연한 상징성에 기반한 논증이라는 데네허의 논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4절에서는 3절에서의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여 이러한 리얼돌과 섹스로봇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사물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기호적 의미와 혼동하고 있음을 기호적 의미의 공유에 있어 물리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퍼스의 논증을 이용하여 지적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문제를 어떠한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 2. 리얼돌·섹스로봇 안에 나타난 성적유아론(Sexual Solipsism) 그리고 인간의 사물화 문제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서 보다시피 리얼돌이나 섹스로봇은 본래적으로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물, 즉 도구이다.<sup>7)</sup> 이러한 도구들은 자율적 행위로서의 성행위 능력을 갖는 인간과는 다른 기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성적 상호작용은 가능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용자의 취향과 행위에 맞게 제작되고 반응하는, 즉 자율성<sup>8)</sup>을 결여한 하나의 기계 장치 정도에 불과하다<sup>9)</sup>고 볼 수 있다. 이러한

6) 이 논문은 리얼돌과 섹스로봇을 반대하는 진영의 논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리얼돌이나 섹스로봇의 발전 상황이나 그 수요의 현황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경 (2019)를 참고하라.

7) Bendel (2017), p. 18.

8) 자율성의 개념은 “자기 자신 전체를 반성의 대상으로 삼는 능력,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가치들, 연관성, 그리고 자신을 규정하는 속성들을 수용하거나 부정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요소들을 자기 뜻에 따라 변경하는 능력을 함축한다.”고 일컬어진다. (고인석 (2018) 참고).

관점에서 본다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도구—세탁기, 로봇 청소기, 식기 세척기 등—에 불과한 이 인공물들은 인간이 하는 일들을 대신함으로써 인간 생활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sup>10)</sup> 또한 이러한 인공물들은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지위<sup>11)</sup>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의 성적 행위 그 자체에 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어렵다.<sup>12)</sup>

하지만 리얼돌 그리고 섹스로봇의 그 본래적 목적과 존재론적 지위와 무관하게 이들 도구들이 가지는 상징성에 주목한다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그리고 단순한 도구적 지위가 아닌 인격의 침해를 구체화 시키는 장치로서 그 지위는 변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접근을 받아들인다면, 리얼돌과 섹스로봇 그 본래적 목적과 기능의 문제가 아닌 이들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로부터 잠재적인 윤리적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 절에서는 이들 도구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이를 고려하였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한다.

### 1) 성적유아론(Sexual Solipsism) 그리고 인간의 사물화(Objectification)

리얼돌과 섹스로봇은 인간의 신체 형상을 매우 현실감 있게 묘사한 제품들이다. 또한 피부, 모발, 얼굴, 가슴, 둔부, 성기 등 신체의 각 부분을 구매자의 기호에 맞게 제작, 변형 가능하다. 이러한 표현의 구체성과 성적 취향의 실재성(the possibility of realizing sexual orientation)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형상<sup>13)</sup>이 성기구화 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9) 김태경 (2019) pp. 71-72.

10) 실제로 아드쉐이드는 섹스로봇의 사용이 다른 가전 도구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일하는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결혼의 질과 가계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arina Adshade (2017) 참고.

11) Fletcher (1972). 참고.

12) 김태경 (2019) 그리고 Bryson (2010) 참고.

13)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제작과 수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부분 남성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형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형상의 구체화와 성적 이상의 실현 가능성이 오로지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윤지영은 최근 리얼돌의 제작과 사용에 내재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리얼돌은 포르노 판타지의 물질적 구현이자 공감각적 체현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포르노그래피가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한정된 것이라면, 리얼돌은 화면 바깥으로 나온 포르노 판타지의 실현이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모두를 자극하는 특징을 갖는다. 포르노 그래피에 의한 성적 행위의 일방적 서사화 방식이 무한정으로 적용되는 신체-공간, 그것이 바로 리얼돌인 것이다. 이러한 포르노그래피 문화에서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에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여성의 신체는 남성 욕망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판본이자 모의실험 장소이다. 즉 리얼돌은 여성신체 위에서 무제한 적으로 전개되는 남성욕망의 지도로 가능성과 동시에 여성 신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용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장치로 기능한다.”<sup>14)</sup>

위와 같은 판타지와 욕망의 실재적 구현 가능성으로 인해, 리얼돌이나 섹스로봇의 상용화는 그 사용자에게 있어 개인의 성적 자유를 허용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자유의 허용은 실제 성행위에 있어 그 대상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실제 사람을, 특히 여성을,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위한 도구로서 인식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유도 과정의 원인은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상용화가 사용자의 성적 취향을 자위행위<sup>15)</sup>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 그리고

---

남성에게만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 대상이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구체화와 실현 가능성 그 자체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 인용문을 제외한 필자의 모든 표현은 리얼돌과 섹스로봇 제품을 여성, 남성의 형상으로 지칭하지 않고 사람의 형상으로 일괄적으로 표기한다.

<sup>14)</sup> 윤지영 (2020), pp. 31-32 그리고 윤김지영 (2019) 참고.

<sup>15)</sup> 자위행위 그 자체가 성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성행위가 일종의 다른 누군가와 성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면, 리얼돌이나 섹스로봇을 사용하는 자위행위는 상

오로지 사용자의 욕망만을 실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 있다.<sup>16)</sup> 이렇기 때문에 리얼돌과 같은 도구의 제작과 사용은 결과적으로 타자의 존재 지위나 성적 욕구와 취향 등을 인정하는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타자를 자신의 욕망의 현상이나 관념으로 축소시켜 오로지 자신의 욕망만을 실재하는 ‘성적인 유아론(Sexual Solipsism)’을 구체화 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sup>17)</sup> 이러한 성적유아론의 구체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성적 행위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이나 사물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는데서 출발<sup>18)</sup>하며, 이는 사물의 인간화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사물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리얼돌과 섹스로봇은 그 목적과 표현 자체가 인간이 하는 성행위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에 있다. 또한 사물화 된 인간의 외형에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성적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의 사용은 “사물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유아론이 사람을 사물들처럼 취급하는 유아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sup>19)</sup> 따라서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제작과 사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도구의 사용이 단순히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구라는 수식어 안에 자신의 성적 욕망만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실현가능하는 과정 속에서 행위의 대상이 되는 존재의 취향이나 욕구를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즉, 성적 행위 안에서의 불평등한 관계를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점이 감추어져 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안티 섹스로봇 캠페인(Anti-sex robot campaign)’을 벌이고 있는 리차드슨은 섹스로봇의 사용이 잠정적으로

---

호작용에 필요한 ‘누군가’의 존재를 결여하기 때문에 성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공유하지 않게 된다. (Migotti & Wyatt (2017), p. 21).

16) 윤지영 (2020), pp. 32-33.

17) Ibid.

18) Langton (1995), p. 151.

19) 윤지영 (2020), p. 34, 재인용 Langton (1995), p. 153.

인간을 사물화 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매춘과의 유사성을 언급한다. 그녀에 따르면, “매춘은 평범한 활동이 아니며 사람을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고 있고 바로 이 때문에 성매매 로봇과 성매매는 이러한 점에서 유사점을 갖는다.”<sup>20)</sup>고 말한다. 이 둘이 갖는 유사성<sup>21)</sup>이란 돈을 가진 성 매수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에 따라 행위 할 것을 요구하며, 행위의 당사자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관계에 놓이게 되어 있듯이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사용은 바로 능동적인 사용자가 수동적인 기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쾌락만을 그 목적으로 행위 하게 되고 그 대상의 욕구와 존재를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러한 유형의 유사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개발과 사용은 사용자의 성적유아론을 구체화 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의 불평등성을 실재적으로 구체화하고 인간의 사물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요 논지이다. 이러한 성적유아론의 구체화와 사물화 문제는 다시 여성의 성적 상징성을 왜곡하는데 그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이러한 왜곡된 상징성에 대해 검토한다.

---

<sup>20)</sup> Richardson (2016), p. 290.

<sup>21)</sup> 섹스로봇과 성매매가 갖는 유사성에 대해 레비(Levy 2007)는 리차드슨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레비는 성매매의 긍정적 측면이자 주된 동기인 다양성(Variety), 복잡성과 제약의 결여(Lack of Complications and Constraints), 그리고 이성과의 관계 실패 경험(Lack of Success with the Opposite Sex)은 섹스로봇의 사용 목적과 동기와 유사하며 섹스로봇의 사용은 성매매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성매매가 갖는 비윤리적이고 비합법적인 문제 역시 섹스로봇의 사용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레비의 이러한 관점과 리차드슨의 관점을 비교, 평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여전히 위의 동기와 무관하게 성적 취향 및 욕구의 실재성과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있는 불평등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둘 사이의 비교를 통한 우위 평가 보다는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반대 논증이 갖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



## 2) 사물화 그리고 상징의 문제

랭턴(Langton)에 따르면<sup>22)</sup>, 여성을 대신하는 사물<sup>23)</sup>에는 실제 여성이 갖는 몇 가지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기대되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은 본래 여성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행위와 외형의 모사를 통한 사물화의 과정과 성적 유아론이 결합하여 나타난 왜곡된 상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사용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즉 성적 판타지에 기반한 상징성이 실제 인간에게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윤지영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리얼돌에게 부여된 사람과 같은 특성들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여성의 수용성, 수동성, 무해함이자 성적 욕망의 배출소라는 가능성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리얼돌은 남성의 비대한 자아에 그 어떠한 타격도 줄 수 없는 남성적 나르시즘의 방어기제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섹슈얼리티라는 성적 실천의 장을 독백적 자아의 메아리로만 채우는 행위이자 자아 팽창의 욕구로만 환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얼돌은 지배의 에로티시즘이라 할 수 있다. 리얼돌은 여성 신체 형상에서 동의와 저항, 거부의 가능성을 삭제, 소거한 후, 수용적 신체를 여성의 기본형으로 놓는 인식 왜곡의 장소임과 동시에, 이러한 폭력적 인식을 실현해나가는 것을 남성 성욕의 기본적 절차이자 권력의 감각으로 구축해낸다.”<sup>24)</sup>

사물에 부여되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가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구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본래 사물의 모델이 되었던 인간이 사물이 갖는

<sup>22)</sup> Langton (1995), p. 152 그리고 윤지영 (2020), p. 33. 참고.

<sup>23)</sup> 여기서 랭턴과 윤지영이 사용하는 ‘대신 한다’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여성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로부터 찾을 수 있는 특성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남성의 관점에서 성행위 시에 여성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행위만을 일컫는다.

<sup>24)</sup> 윤지영 (2020), pp. 33-34.

특성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성적 유아론에 입각한 사물화의 과정을 통해 사물이 갖는 특징—성행위에 있어서의 여성성 혹은 남성성—을 다시 사람을 재정의 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sup>25)</sup> 이러한 재정의의 지적하는 이유는 바로 재정의의 문제가 단순히 2심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처럼 사적인 성행위 영역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얼돌이나 섹스로봇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는 단순하게 사적인 영역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공물들은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제작되는데 이 때 이들을 종류별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신체 부위를 취향에 맞게 제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용 후기를 공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시욕, 과시욕, 그리고 공유문화가 형성되게 된다. 이는 도구를 이용한 성행위가 단순한 사적 영역에서 행해지는 자위의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적 유희와 과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26)</sup> 그리고 여기서 그 사물화의 모델이 된 존재는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sup>27)</sup>—, 이러한 집단적 유희와 과시의 희생양이 된다. 따라서 2심 재판부의 의견처럼 리얼돌의 수입허가 및 상용화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유를

25) MacKinnon (1993), pp. 25-26 참고.

26) 윤지영 (2020), pp. 35-42 참고.

27) 리얼돌과 섹스로봇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여성으로 한정지어 이야기 한다. 서론에서 소개된 수입 과정에서 문제가 된 리얼돌의 경우, 리얼돌의 대부분이 여성 신체를 가지고 있고, 매춘이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난다는 점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여성들이 사용하는 성적 기구들이 남성의 몸 전체를 표현하지 않고 바이브레이터와 같이 성적 대상의 외형적 구조 보다는 자신의 신체 감각에 더 집중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도구 사용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음을 강조한다. (하예진 (2019) 그리고 윤지영 (2020), p. 26 참고). 하지만 논자는 오로지 여성들만이 매춘의 대상은 아니며, 이러한 상징성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취향 차이에 기반한 것이 아닌 도구를 이용한 쾌락의 추구라는 그 본래적 목적과 더불어 성적 기호에 맞는 도구의 선택과 제작 그리고 후기 등의 정보 공유라는 특징을 의미하고 이것은 여성의 성적 도구 사용에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성별을 특칭하지 않고 모사의 모델이 되는 ‘인간’으로 대체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보장하는 문제가 아니며, 국가의 사적 영역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문제가 아닌 인간에 대한 불평등하고 왜곡된 의미의 확대에 대한 문제로 바뀌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리얼돌과 섹스로봇과 같은 인공물은 단순한 도구적 지위를 갖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침해를 구체화 시키는 장치로서 그 지위를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 절에서 다루었던 리얼돌과 섹스로봇이 갖는 상징적 의의미가 갖는 문제는 무엇인지 검토한다.

### 3. 상징적 결과논증(Symbolic Consequence Arguments) 그리고 의미의 우연성

앞선 절에서 검토했던 바에 따르면, 리얼돌과 섹스로봇이 갖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리얼돌과 섹스로봇은 오로지 자신의 욕망만을 실현하는 것으로 여기는 성적 유아론을 구축하는 장치이다.
- 2) 성적 유아론적 관점에서 보면, 성적 대상의 욕망과 관점의 실재성이 제거된다.
- 3) 만일 2)라면,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 4) 따라서, 이러한 인공물의 제작과 사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상용화 문제는 잠정적으로 인간을 성적 욕망과 관점의 실재성이 모두 제거된 무자비한 성적 폭력의 피해자로 만들게 될 가능성을 낳게 된다. 이는 심각한 사회의 위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1)에 나타난 ‘성적 유아론을 구축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는 과연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 1) 상징적 결과 논증 (Symbolic Consequence Argument)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 인공물들은 각각 ‘인간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성행위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실리콘 인형’과 ‘사람들과 섹스를 목적으로 설계되고 프로그래밍 된 로봇’을 의미한다.<sup>28)</sup> 실제 이 의미는 리얼돌과 섹스로봇을 지칭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공물의 상용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도 반대하는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인공물이 갖는 본래의 모습과 기능에 따르면, 위에서 제기된 성적 유아론을 구축하는 장치로서의 지위는 사라지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게 된다.

그렇다면, 실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적 의미는 어떻게 부여받은 것일까? 테네허의 분석에 따르면, 리얼돌이나 섹스로봇의 제작과 사용을 반대하는 진영이 갖는 논증은 그 주장이 실재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 되는 것이 아닌 임의의 누군가에 의해 부여된 상징적 의미에 기반하고 있는 논증에 해당한다. 테네허에 따르면 이러한 논증이 갖는 모습은 아래와 같다:

- 1) 리얼돌과 섹스로봇과 같은 인공물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규범(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2) 만일 1)이라면, 이러한 인공물의 개발과 사용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3) 따라서 이러한 인공물의 개발과 사용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sup>29)</sup>

리얼돌과 섹스로봇이 ‘문제가 되는 성규범’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원인은 그리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이러한 인공물은 인간과 같은 자

<sup>28)</sup> Bendel (2017), p. 18, 재인용 김태경 (2019), p. 71.

<sup>29)</sup> Danaher (2017), p. 107. 위는 테네허의 분석을 본 논문의 내용에 맞게 원문에 나와 있는 ‘섹스로봇’을 ‘리얼돌과 섹스로봇’ 그리고 ‘인공물’로 바꾸었다.

울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에 스스로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공표하지 못한다. 이러한 인공물의 사용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는지의 여부 또한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테네허에 따르면, 위와 같은 논증은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상징적 의미에서 출발하는 상징적 결과논증(Symbolic Consequence Argument)에 해당한다. 상징적 결과 논증이란 특정한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임의적으로 긍정 혹은 부정의 의미<sup>30)</sup>를 부여하고 이로부터 그 현상이나 사물과 관련된 행위의 결과가 해당 상징성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주장을 담은 논증을 의미한다. 리얼돌이나 섹스로봇의 경우, 이들 인공물들이 인간에 대한 태도나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성규범에 반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다. 즉 부정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상징성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리얼돌과 섹스로봇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논증들이 갖는 특징이다.

앞서 얘기하였듯이 이러한 부정적 상징성은 특정한 하지만 대체로 근거가 있는 해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인공물에 대한 해석은 리차드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사람 그리고 이들이 보여주는 행위의 유사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대체로 권위를 가진 존재가 유사성에 기반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출발하게 된다.<sup>31)</sup>

## 2) 상징적 의미의 우연성

하지만 행위와 모습이 유사하다고 해서 그 의미 역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어린 아이가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로마의 검투사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 둘의 행위와 목적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뿐더러 우리는 이것을 동일한 의미로서 인식하지도 않는다. 또한 어린 아이의 이러한 모습을 즐거워하는 부모의 모습과 검투사가 피를 흘리

30) 테네허는 섹스로봇 반대 캠페인의 논증에 한해 상징적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상징적 의미가 임의적 혹은 우연적으로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4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31) Ibid, pp. 112-123.

며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즐거워하는 로마의 시민들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 또한 아니다.

외형적 모습과 행위가 상징하는 의미는, 그것이 매우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 실재성에 따라 혹은 의미의 부여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 어지느냐에 따라 확연히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즉 문제가 되는 상징성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의미 부여에 따라 만들어 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파푸아 뉴기니에 있었던 포레족의 오랜 식인 풍습으로부터 나타난 쿠루병의 발병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상징적 의미의 임의성과 우연성은 더 명확히 드러난다. 1950-60년대 포레족은 특이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이 병은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근육이 마비되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환자들은 이 경련으로 인해 얼굴 근육을 마음껏 쓰지 못하여 웃는 모습을 보이다가 숨지게 된다. 1976년 칼튼 가두색은 이 병의 원인을 조사하였고, 이 병은 단백질 프리온의 변형—동종이 동종을 음식으로 섭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광우병의 종류—이 그 원인임을 밝혀내었다. 포레족은 1890년대부터 받아들이는 특이한 장례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그 시체를 부족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행동의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를 먹으면 그의 생전의 기억과 영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즉 망자를 존중하는 하나의 긍정적 상징성을 갖는 행위였던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 바로 이 풍습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들은 더 이상 이러한 장례문화를 지속하지 않게 된다. 즉 긍정적 의미의 상징성이 실재적 증거—부정적 결과—에 의해 부정적 의미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식인 풍습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권위 있는 누군가가 임의적으로 해석한 바에 의해 그 긍정적 의미가 장례 의식과 식인 행위에 부여되었을 것이다.

데네허에 따르면, 이러한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안티섹스로봇 캠페인이 주장하는 부정적 상징성 역시 실재적 증거에 기반

한 의미가 아닌 임의적이고 우연적으로 부여된 상징적 의미에 해당된다. 현재까지는 어떠한 실재적 증거로부터 이와 같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해당 인공물의 사용이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인간성의 훼손’이나 ‘성적 유아론’을 구축시키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지 임의적으로 부여된 위와 같은 ‘부정적 상징’에 근거하여 해당 인공물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선 절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사용 후기라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도구를 통해 얻은 자신의 쾌락 만족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이 점에서는 다른 종류의 성인용 장난감(sex toys)들의 사용 후기와 별 다를 바가 없다—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부정적 의미의 실재적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상용화에 있어 문제가 되는 상징성은 임의적으로 부여된 의미에 기반한 ‘상징적 결과 논증(a symbolic consequence argument)’에 해당하며, 긍정적 결과에 의해 현재의 부정적 의미의 상징성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문제가 되는 상징은 많은 실재적 결과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만일 상징적 결과논증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징이 야기하는 실재적 결과이다.<sup>32)</sup> 하지만 상징적 결과논증 안에서 그러한 결과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상용화 문제는 단순히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상징성에 의존하여 다룰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실험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sup>33)</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리얼돌과 섹스로봇이 갖는 부정적 의미의 상징성과 별개로 이들을 상용화 하였을 때의 긍정적 결과를 확인한다면, 이러한 부정적 상징성은 아주 쉽게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sup>34)</sup>

<sup>32)</sup> Danaher (2017), p. 107.

<sup>33)</sup> Ibid, p. 125-126.

<sup>34)</sup> 레비가 주장하고 있는 매춘과의 유사성과는 별개로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인공물에 대한 실험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헤로인 치료를 위해 메타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소아성애가 질병이라면, 이러한 질병의

물론, 필자나 데네허 역시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상용화가 그것이 갖는 부정적 상징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반드시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인공물의 상용화를 반대하는 논증의 출발점이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상징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연적인 상징성에 근거하여 전면적 반대나 혹은 예측되는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전면적 허용을 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 실험적 접근법과 같은 제한적 허용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더 적절한 접근법임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리얼돌이나 현재까지 섹스로봇에 대한 행위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우연적이며 (highly contingent) 실제 우리가 갖는 상징성과 무관하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창발적(emergent)이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리얼돌과 섹스로봇이 갖는 두 가지 의미를 기호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로 나누어 검토한다.

#### 4.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두 가지 의미

앞선 절에서 필자는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상용화를 반대하는 진영이 갖는 논증을 데네허의 입장에서 검토하였고, 이들 논증이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상징성에 기반한 상징적 결과논증에 해당함을 지적하였다. 이 절에서는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상용화를 반대하는 입장이 사물이 갖는 다의적이고 우연적인 상징적 의미를 일의적인 기호적 의미로 혼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 1) 유사성의 두 가지 해석

1절과 2절을 통해 검토했던 리얼돌과 섹스로봇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

치료를 위해 아동섹스로봇의 개발은 시도해 볼만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Prigg (2014) 참고).



는, 이들 인공물이 성적유아론을 구체화 시키고 인격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물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논증은 사물이나 현상이 갖는 다의적 측면 중 하나의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문제는 쉽게 드러날 수 있다. 이들 인공물의 상용화를 찬성하는 레비는 반대 진영의 리차드슨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공물에 대한 성적 행위와 사람의 매춘 행위가 갖는 유사성에 근거하여 긍정적 의미를 부각시킨다. 그에 따르면, 리얼돌과 섹스로봇과 같은 인공물들은 매춘의 세 가지 동기, 즉 다양성, 복잡성과 제약의 결여, 그리고 이성과의 관계 실패 경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sup>35)</sup> 이러한 인공물의 상용화가 매춘의 동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떠한 감정적 교감 없이, 즉 인격체의 개념이 전개되지 않은 채, 성행위만을 나누고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 만족을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sup>36)</sup> 다시 말해, 사랑과 같은 감정적 교감 없이 인간은 충분히 성행위만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다<sup>37)</sup>는 것이다. 그는 “어느 누구든 자주 혹은 아주 드물게 매춘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들은 매춘을 통해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얻게 된다. [...] 실제의 사랑과 같은 감정 없이 성행위만을 나누고 이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sup>38)</sup>고 말한다.

레비의 이와 같은 주장은 리얼돌과 섹스로봇과 같은 인공물이 매춘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거나 인간의 성적유아론을 구체화 시키는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성적 쾌락과 사람의 감정을 분리시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 쾌락이 사랑 혹은 인격체의 개념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확인 가능하다면, 이 인공물들은

<sup>35)</sup> Levy (2007) 그리고 Levy (2016).

<sup>36)</sup> 물론 이러한 유사점과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해서 레비가 매춘을 옹호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인간 사이의 상호 감정적 교류 속에 존재하는 사랑의 감정과 성행위를 분리시켜 바라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sup>37)</sup> Loebner (1998) 참고.

<sup>38)</sup> Levy (2016) 참고.

부정적 상징이 아닌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외모와 역할의 유사성이 반드시 부정적 의미의 상징성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반대되는 긍정적 의미의 상징성 또한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물들의 현 발전 단계에서는 어떠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둘의 논의들 중 어느 것이 우위를 점한다고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서로 반대되는 상징에 근거하여 평행을 달리고 있는 논쟁들이라는 것을 밝히거나 혹은 이들 중 어느 진영이 조금 더 실천적 논의에 가깝다는 것을 논하고자 함은 아니다.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해석에 따른 긍정적 의미의 상징성과 부정적 의미의 상징성은 여전히 가변적이며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상징적 의미에 의한 해석을 기호적 의미에 의한 해석으로 간주하였을 때 발생한다는 점이다.

## 2) 기호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상용화 문제, 특히 반대하는 측, 에 나타난 이들 인공물의 의미를 다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성적 유아론을 구축하는 장치
- 2) 사물의 인간화를 통해 인간의 사물화를 실현시키는 장치
- 3) 인격의 훼손을 의미하는 장치

하지만 위에서 지적하였다시피 이러한 의미는 상징적 의미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임의성과 우연성을 가짐과 동시에 한 방향으로만 의미가 통하는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보았다시피 때때로 주관적이며 우연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의 해석이 갖는 특징은 사물이나 현상 그 자체와 이에 대한 해석이 서로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사물 그 자

체 혹은 사물을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일 뿐 이러한 행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거나 동의어는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어떤 것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기호적 의미에 의한 해석은 해당 사물과 해석의 의미가 서로 교환 가능하다. 즉 주어항과 술어항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놓아도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는 건강의 위험요소이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보자. 흡연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알고 있다. 담배를 어린 아이들이나 환자들에게 권유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경험에 의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배를 줄이려고 하는 행위는 담배의 직, 간접적 유해성으로부터 온다. 즉, 담배라는 대상이 가지는 상징성은 하나의 일정한 행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건강의 위험 요소는 담배이다.’라는 명제는 위의 명제와 의미적으로 큰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섹스로봇이나 리얼돌과 같은 인공물이 갖는 부정적 의미는 부정적 행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앞선 절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사적 공간에서의 쾌락 추구 안에 반드시 우려되는 부정적 의미의 상징성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우려되는 부정적 상징성과 사적 쾌락 추구는 서로 동등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퍼스<sup>39)</sup>에 따르면, 단순자로서의 사고(thought)는 아무런 성질과 부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사고가 의미를 갖는 것은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에 놓인 다른 사고들과의 연결을 통해서만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40)</sup> 즉, 사고에 대한 이해는 ‘매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사고는 주체의 물리적 경험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sup>41)</sup>

39) 기호적 의미를 논의함에 있어, 논자가 퍼스를 언급하는 이유는 리얼돌과 섹스로봇과 같은 인공물에 대한 의미 부여를 실재적 증거위에 놓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40) 퍼스 (2006).

41) 노양진 (2016), pp. 96-97.

기호의 의미는 해당 기호와 대상 사이의 관계가 해석자의 의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지에 따라 그 기반(ground)이 구축되어 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호가 반드시 그 대상을 표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직접적인 지시대상(referent)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상은 사고의 과정에서 발생된 의미가 아닌 그 기호가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실제 대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시대상과 기호 간의 지칭적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이와 관련된 사고들과의 연결을 통해서만 해당 기호의 의미가 해석되고 이해된다. 즉 해당 지시대상과 관련된 사고들이 매개가 되어 기호의 의미를 형성해 간다. 따라서 퍼스에게 있어 기호적 의미란 실제 사건들의 연결에 의한 것이 아닌 사고의 연결, 즉 마음의 사고과정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리얼돌과 섹스로봇이 갖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의미는 모두 그 지시대상과 관련된 사고로부터 얻어지게 되므로 이 둘 모두 기호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미를 형성하는 사고들의 연결에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우리의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물리적 대상이 기호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대상이 지닌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기호화’라는 작업을 진행하는 우리의 경험에 의존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시 대상과 주체 사이의 물리적 관계<sup>42)</sup>로부터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관계는 주체의 사고 안에 존재<sup>43)</sup>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시 대상에 관한 의미가 형성된다. 주체는 주체의 “경험내용을 특정한 대상에 기호적으로 사상하며, 그 사상된 경험 내용의 ‘관점(in terms of)’에서 그 대상을 이해하고 경험한다.”<sup>44)</sup> 퍼스의 이러한 ‘기호’에 대한 의미를 본 논의에 적용하면,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기호적 의미는 바로 그 지시대상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물론 이 단계에서

42) 기호적 의미의 형성에 있어 퍼스가 물리적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해당 기호의 의미를 물리적 층위에서 확보하는 것이 보편적 의미를 공유하는 데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Ibid, pp. 106-107 참고.

43) 퍼스는 이를 ‘해석체(interpretant)’라 칭한다.

44) 노양진 (2016), 97쪽.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호로서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 이러한 인공물들을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의 물리적 경험으로부터 그 의미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경험적인 진술들은 일종의 후기들 정도이며 이 후기들은 반대론자들이 옹호하는 여성의 성도구들의 후기와 그 내용상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3절의 2)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긍정적 의미의 상징성을 형성할 만큼의 물리적 경험들은 존재하지만, 우려되는 부정적 의미의 상징성을 형성할 만큼의 실재적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해당 인공물을 퍼스가 제시한 기호적 의미를 제거한 채 상징적 의미로만 해석하였을 경우에는 앞선 절에서 지적하였다시피 경험적 증거들이 제거된 임의적인 누군가에 의해 부여된 우연적 의미만을 가지게 된다. 즉 의미에 대한 보편적 우위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물론,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긍정 혹은 부정적 의미의 상징성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나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가 누군가에게는 폭력과 억압의 상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민족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것과는 그 결이 다르다. 이러한 상징은 단순한 임의적인 의미 부여가 포함된 것이 아닌 이들의 상징성을 결정짓는 실제 사건들, 즉 명확한 실재적 근거들이 존재한다. 어느 누가 이러한 상징물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긍정적 의미의 상징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이를 쉽게 무력화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실제 사건들이 넘쳐난다. 이와 다르게 리얼돌과 섹스로봇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세우고 있는 상징성은 여전히 그 실재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진영에서 내세우고 있는 부정적 상징성은 다의적인 상징적 의미에 의한 해석에 해당하지 일의적인 기호적 의미에 의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리얼돌 그리고 섹스로봇이 성적 유아론을 고취시킨 다거나 인간의 사물화 그리고 인권의 침해를 전적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의미는 실재적 증거들의 부재에 의해 여전히 제거 가능하다.

##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리얼돌과 섹스로봇을 반대하는 진영이 갖는 논증을 검토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이 인공물들은 성적 유아론을 구체화 시키고, 인간을 사물화 시키는 장치이며, 결과적으로 인격체의 존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사물들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데네허의 분석을 이용하여 이들의 논증은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상징적 의미에 근거한 상징적 결과 논증에 해당함을 보였다. 즉, 실증적 차원에서의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논증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확대하여 이 논증들이 부적절한 이유는 상징적 의미가 갖는 그 임의성 그리고 우연성과 마찬가지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임의적인 상징성을 기호적인 상징성의 의미로 해석하는 데 있음 또한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4절에서 반대 진영이 제기하는 부정적 상징성은 해당 사물과 그 의미를 서로 공유 및 교환할 수 없고 실재적 근거에 의해 얼마든지 제거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상징적 의미에 의한 부정적 해석은 리얼돌과 섹스로봇 논쟁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후퇴시킨 악법으로 평가받는 ‘적색조례(The Locomotives on Highway Act)’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이 조례는 사양길로 접어들던 마차 업자들이 자동차의 폭발 및 인명사고 그리고 마차가 다니던 도로의 훼손과 같은 부정적 의미의 상징성을 내세운 반기가 정치권을 압박하여 시행된 법이다. 세계 최초의 교통법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영국이 시발점이었던 자동차 산업을 독일과 프랑스에 내어 주게 된 법으로도 평가 받는다. 즉 자동차 산업의 효율성과 이익 등에 의해 마차 업자들이 제기하였던 부정적 상징은 제거되었고 긍정적 의미를 가졌던 법은 실제 결과에 의해 부정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에 대해 우리는 긍정, 부정으로 단정하기 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리얼돌과 섹스로봇이 분명 인간의 성적 욕구와 관련이 있지만 그 이상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인공물에 대해 이들로부터 얻게 된 사회적 기능과 삶에 끼칠 변화 등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적절한 접근 방식은 “현상 그 자체는 받아들이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전면 금지 보다는 부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인공물들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sup>45)</sup>해야 하지 우연한 상징성에 근거한 전면 금지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sup>45)</sup> 신상규 (2020).

## 참고문헌

- 고인석 (2018), “인공지능의 존재 지위에 대한 두 물음“, 『철학』, 제 136집, pp. 161-183.
- 김태경 (2019), “섹스로봇(Sex Robot)의 상용화가 갖는 윤리적 문제와 윤리적 정당성 확보에 대하여”, 『철학논총』, 95집, 제 1권, pp. 69-85.
- 노양진 (2016), “퍼스의 기호개념과 기호해석”, 『철학논총』, 83집, 제 1권, pp. 95-110.
- 신상규 (2020), [리얼돌, 그 불쾌한 골짜기를 걷다④] “리얼돌의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구시대적 생각 바뀌야” [www.ntoday.co.kr](http://www.ntoday.co.kr) 2020. 05. 12.
- 윤지영 (2020),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 문화와 사회, 28권 1호, pp. 7-68.
- 윤김지영(2019), “리얼돌.”, 『아이즈』(08/12/2019), <https://m.ize.co.kr/view.html?no=2019081208237219938>
- 퍼스, 찰스 샌더스, 『퍼스의 기호 사상』, 김성도 편역, 민음사, 서울, 2006.
- Bendel, O. (2017), “Sex Robots from the Perspective of Machine Ethic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2017, A.D. Cheok et al. (Eds.): LSR 2016, LNAI 10237, pp. 17-26.
- Bryson, J. (2010), “Robots Should be Slaves”, in *Close Engagements with Artificial Companions: Key Social, Psychological, Ethical and Design Issues*, Y. Wilks ed. Amsterdam: John Benjamins. pp. 1-12.
- Danaher, J., Adshade, M., et al. (2017), *Robot Sex: Social and Ethical Implications*, The MIT Press.
- Shen, F. (2019), “The Tricky Ethics of Sex Robots”, 2019. 04. 30., <https://www.thedailybeast.com/the-tricky-ethics-of-sex-robots-10?ref=scroll>.



- Fletcher, J. (1972) in his “Indicators of Humanhood: A Tentative Profile of Man”. in *The Hastings Center Report*, Vol. 2. no. 5.
- Langton, R. (1995), “Sexual Solipsism”. *Philosophical Topics*, 23(2), pp. 149-187.
- Levy, D. (2007), *Love and Sex with Ropbots: the evolution of human-robot relations*, HarperCollins Publishers, New York.
- \_\_\_\_\_. (2016), “Sex With Robots: Yes!”, Ideacity Talk: Sex and Love with Robots, <https://www.youtube.com/watch?v=Yx5L2LAJUSE>
- Loebner, H. (1998), “Being a John.” In *Prostitution: On Whores, Hustlers, and Johns*, Elias, J., Bullough, V., Elias, V. & Brewer, G. (Eds.), Prometheus Books, Amherst, NY.
- MacKinnon, C. (1993), *Only Words*. Cambridge and Massi: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k Prigg (2014), “Could Child Sex Robots be Used to Treat Pedophiles?”, <https://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2695010/Could-child-sex-robots-used-treat-paedophiles-Researchers-say-sexbots-inevitable-used-like-methadone-drug-addicts.html>, 2014. Retrieved 2020-08-13.
- Migotti, M & Wyatt, N. (2016), “On the Very Idea of Sex with Robots” in *Robot Sex: Social and Ethical Implications*. The MIT Press, pp. 15-27.
- Richardson, K (2016). “The Asymmetrical Relationship”, in *ACM SIGCAS Computers and Society*, 45(3), pp. 290-293.
- \_\_\_\_\_. (2016), ‘Robots and Ethics: the Future of Sex’, TEDxULB,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YaMiH93-iPE>.

논문 투고일	2020. 10. 23
심사 완료일	2020. 11. 17
게재 확정일	2020. 11. 17

---

## The Problem of Symbolism in Real Dolls and Sex Robots

Tae-Kyung Kim

---

One of the main arguments against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al dolls and sex robots is that the use of these artifacts results in an invasion of humanity.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that this argument is based on contingent symbolism, not claims based on real grounds, and therefore we may not confirm that these artifacts do infringe on humanity. Through this, I will argue that we may not depend on such arguments that are strongly based on highly arbitrary and contingent symbolic meanings of objects, and that human dignity should be prepared from practical grounds, not based on symbolism of objects.

**Keywords:** Real Dolls, Sex Robots, Sexual Solipsism, Objectification, Symbolic Consequence Arguments